

최나연, 美LPGA 사임다비 말레이시아 우승…태극낭자 美LPGA 통산 100승 위업

마침내 청야니를 꺾다

청야니 1타차 꺾고 1주일전 패배 설욕
시즌 첫 우승이 '태극낭자 100승' 경사

최나연(24·SK텔레콤)이 청야니(대만)를 꺾었다. 최나연은 16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팔라렐푸르의 팔라렐푸르골프장(파71·6208야드)에서 열린 미LPGA 투어 사임다비 말레이시아(총상금 19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더블 보기 1개를 기록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친 최나연은 이날만 6타를 줄인 세계랭킹 1위 청야니(대만·14언더파 270)의 추격을 뿌리치고 1타 차로 신승했다. 지난 주 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1타 차 준우승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냈다.

최나연의 우승으로 한국(95승) 및 한국계 선수(6승)는 미LPGA 투어 통산 100승째를 기록했다. 최나연은 시즌 첫 우승이자 개인 통산 10승(국내 5승, 해외 5승)째. 우승상금은 28만 5000달러다.

●청야니 상대 일주일 만에 설욕

창과 방패의 대결 같았다. 청야니가 찌르면 최나연이 막아냈다. 일주일 전, 최나연은 청야니에게 한방 먹었다. 안방에서 열린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공동 선두를 달리다 마지막 날 1타 차로 우승을 빼앗겼다. 충격은 컸다. 최나연은 이번 대회 3라운드가 끝난 뒤 “다행히 이번에는 청야니와 경기 하지 않게 돼 부담이 덜하다”며 안도했다.

맞대결을 피하긴 했지만 청야니의 추격은 경기 내내 괴롭혔다. 16번째, 최나연은 2타를 줄이면서 14언더파. 청야니는 6타를 줄이면서 14언더파 동타가 됐다. 기세로 보면 청야니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하지만 마지막 두 홀에서 신은 최나연의 편이었다. 17번홀에서 절묘한 티샷에 이은 버디 퍼트로 1타 차 단독 선두가 됐고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일주일만의 설욕인 셈.

●충격과 때 국가대표 지낸 엘리트 골퍼

한국·한국계선수 美 LPGA 100승 일지

순위	연도	우승자	대회명
1	1988	구옥희	스탠더드레지스터
10	1999	박세리	솔라이트 클래식
20	2001	박세리	제이미파크로거클래식
30	2001	박세리	CJ나인브릿지클래식
40	2004	박지은	나비스코챔피언십
50	2005	한희원	오피스디포챔피언십
60	2006	장정	웨그먼스LPGA
70	2008	박인비	US여자오픈
80	2009	이은정	코닝클래식
90	2010	박세리	벨마이크로클래식
99	2011	유소연	US여자오픈
100	2011	최나연	사임다비LPGA 말레이시아

경기도 오산 성호중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나연은 고교 시절부터 진가를 발휘했다. 대외외고 1학년 재학시절(2004년) KLPGA 투어 ADT 캡스 인비테이션셔널에서 프로 선배들을 꺾고 우승했다. 2007년까지 국내에서 뛴 최나연은 통산 4승(아마추어 우승 포함)을 이룬 뒤 미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겼다. 2008년 조 건부 시드를 받고 시작한 투어에서 상급랭킹 11위에 오르면서 두각을 보였다.

고른 성적을 보이긴 했지만 늘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보면서 '새가슴'이라는 꼬리표를 때 내지 못했다. 2008년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13번홀까지 4타 차 선두를 달렸지만 결국 헬렌 알프레드손에 동타를 허용했고, 연장전에서 저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우승과의 절친 악연은 2009년 9월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끊었다. 미LPGA 투어 55개 대회 만에 이룬 우승이다. 2010년에는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과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상금왕과 베이트로피(최저타수상)를 품에 안았다.

한편, 최나연의 가족과 팬클럽은 한국 및 한국계 선수의 미 LPGA 통산 100승 달성을 기념해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한다. 20일부터 대만에서 열리는 선라이즈 타이완 챔피언십에 출전한 뒤 24일 귀국하는 최나연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환영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배상문 '日오픈 챔피언십'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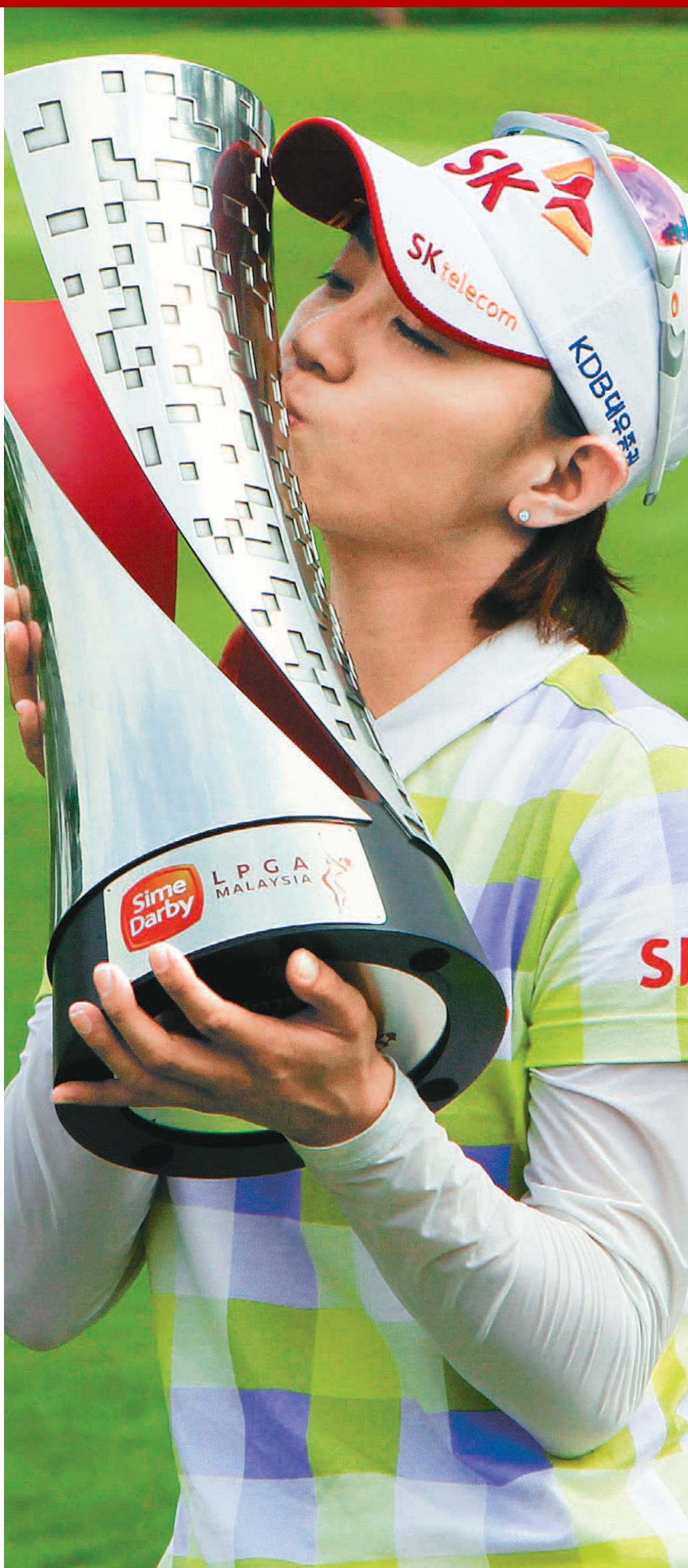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이 일본 최고 권위의 일본오픈골프 챔피언십(총상금 2억엔)에서 우승했다.

배상문은 16일 일본 지바현의 다카노다이 골프장(파71·706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쳤지만 합계 2언더파 282타로 겐이치 구보야(일본)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연장 첫 홀에서 파를 잡아 보기에 그친 구보야를 꺾고 우승했다. 바나 H집과 도카이 클래식 우승에 이어 시즌 3승째다.

한국선수가 일본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1972년 한장상, 지난해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에 이어 배상문이 세 번째다. 2년 연속 한국 선수의 우승. 14번째 이글이 우승의 견인차가 됐다. 선두에 1타 뒤져 있던 배상문은 607야드 파5 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1.2m 거리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1위로 올라섰다.

우승 상금 4000만엔(한화 약 6억엔)을 받은 배상문은 시즌 상금 1억2752만엔(한화 약 19억 1000만원)으로 상급랭킹 1위를 굳게 지켰다.

주영로 기자



편집 | 민상기 기자min3654@donga.com 트위터@b612min

미 LPGA 투어 사임다비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청야니(대만)를 꺾고 우승한 최나연이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번 우승으로 1988년 구옥희의 LPGA 첫 우승에 이어 23년 만에 한국과 한국계 선수의 100승 달성에 성공했다. 팔라렐푸르(말레이시아) | 로이터연합뉴스

동부·LG, 2연승 신바람



원주 동부와 창원 LG가 개막 2연승으로 디펜딩챔피언 전주 KCC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반면 고양 오리온스, 안양 KGC, 서울 SK는 개막 2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동부는 16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2011~2012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전에서 트윈타워 김주성(16점·5리바운드·6어시스트)-로드 벤슨(17점·10리바운드)의 활약을 앞세워 83-64로 완승을 거뒀다. LG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서울 삼성과의 라이벌전에서 올시즌 영업한 '국보급 센터' 서장훈이 양팀 통틀어 최다인 24점을 몰아넣은 데 힘입어 81-74로 승리했다.

전날 인천 원정에서 전자랜드에 열미를 잡았던 부산 KT는 이날 사직체육관에서 펼쳐진 홈 개막전에서 KGC를 74-72로 따돌렸다. 울산 모비스도 홈 개막전에서 말콤 토마스(25점·6리바운드)-양동근(20점·6어시스트)의 합작 45점을 앞세워 오리온스를 94-80으로 제압하고 1승 1패를 마크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KDB생명, 삼성생명 71-63으로 꺾어

구리 KDB생명이 용인 삼성생명을 꺾고 새 시즌을 상큼하게 열었다. KDB생명은 16일 구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1차전 홈경기에서 이경은(20점)-신정자(16점·11리바운드)-한채진(13점) 트리오의 활약을 앞세워 김계령(16점·10리바운드)에게만 의존한 삼성생명을 71-63으로 제압했다.

女축구 최인철 감독, 현대제철 지휘봉 잡는다

여자축구대표팀 최인철(39) 감독이 WK리그 현대제철 지휘봉을 잡는다. 최인철 감독은 “현대제철의 제의를 받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수락했다. 축구협회에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WK리그 출범 후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여자대표팀 감독은 공석이 됐지만 당분간 특별한 일정이 없다. 협회는 시간을 갖고 차기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다.

김하늘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김하늘(23·비씨카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6억원)에서 우승했다. 올 시즌 KLPGA 투어 첫 2승의 주인공. 김하늘은 16일 경기도 여주의 블루헤런 골프장(파72·6704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합계 3언더파 285타로 우승했다. 우승상금 1억2000만원을 보탠 김하늘은 상급랭킹에서도 3억4113만원으로 유소연(3억1469만원)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강경남 '메리츠 솔모로오픈' 정상

강경남(28·우리투자증권)이 경기도 여주 솔모로 골프장(파71·6771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GT)투어 메리츠 솔모로오픈 (총상금 5억원)에서 합계 7언더파 277타로 정상에 올랐다. 6월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우승에 이어 2승째이자 프로 통산 8승째다.

동아일보 2011경주국제마라톤

주최 : 경상북도 경주시 대한육상경기연맹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주관 : 경북육상경기연맹

주관방송 : MBC

협찬 : SK telecom

한국체육위원회 후원 동양생명

asics

공식은행 : KB K뱅크



16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동아일보 2011 경주국제마라톤'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이 미추왕릉을 지나가고 있다.

김미옥 동아일보 기자 sall@donga.com

케냐의, 케냐에 의한, 케냐를 위한 잔치

에루페, 2시간9분23초로 男 정상
케냐선수들 1·2·3위 전부 휩쓸어

케냐 군단이 동아일보 2011경주국제마라톤을 석권했다.

케냐의 신예 윌슨 로아냐에 에루페(23)는 16일 경주시민운동장을 출발해 경주시내와 보문단지를 거쳐 되돌아오는 42.195km 풀코스레이스에서 2시간9분23초로 정상에 올랐다. 2위 키마니 마이클 뉴로지(2시간10분29초), 3위 펠릭스 케니(2시간11분19초)도 케냐 출신.

에루페는 올 초 열린 케냐 국내 대회인 뭌바이 마라톤에서 2시간12분47초로 데뷔한 뒤 국제대회에서 처음 우승했다. 에루페는 34km부터 독주해 2위를 1분 이상 따돌리고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국내 남자부에서는 이재광(음성군청)이 2시간25분20초, 여자부에서는 임경희(SH공사)가 2시간38분21초로 각각 우승했다.

올부터 바뀐 코스에 대한 평가는 엘리트와 마스터스가 엇갈렸다. 에루페는 “27.5km부터 시작되는 언덕이 정말 힘들었다. 언덕만 없으면

정말 좋은 코스다”고 말했다. 국내 여자 1위 임경희도 “레이스 막판에 오르막이 있어 정말 힘들었다. 코스 초반은 평탄했고 날씨도 좋았는데 두 개의 큰 언덕 때문에 기록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2시간28분48초로 마스터스 폴코스 남자 1위를 차지한 김창원 씨는 “지나해보다 코스가 재밌어졌다.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즐겁게 달리는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레이스에는 폴코스 2000여명 등 9000여명이 출전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즐거운 마라톤 축제를 벌였다.

이날 출발지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 주영결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 박병훈 경북도의원, 김일현 경주시의회 의장, 강성주 포항MBC사장, 최병현 경주경찰서장, 배도순 위덕대 총장, 이용태 월성원자력본부장, 박장수 아식스스포츠사장, 최병준 경주체육회 상임부회장, 이흥구 경주육상연맹 회장,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양종규 동아일보 기자 yjongk@donga.com